아버지: 눅 15:11-32

* + 이 본문은 탕자를 조명하는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다.
  +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본문 이다.
  + 하나님을 아버지 로 소개하는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묘사하는 말이다.
  + 소유 보다 관계가 축복이다.
  +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해 전하는 메세지:
    1. 보내시는 아버지
       -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. (렘2:19, 시편 73:28)
       -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.
       - 인간은 자녀가 집을 나갈려고 하면 말린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가면 부모가 너무 걱정할것이 두렵기 때문이다.
       -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을 보낸다는것은 굉장한 결정이다.
       - 본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을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걸로 여긴다 그 말은 신경 안쓴다는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는것만큼 엄청 큰 고통이라는 것이다.
     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내보내신 이유는, 인간을 내보내는것인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지만,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의지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.
       - 즉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, 고통, 죽음, 형벌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 보냈을까?
         * 대답: 하나님은 우리의 죄, 죄의 결과로 고통, 형벌,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의지, 능력,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.